

#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별과 경력에 따른 지각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차이

## Differences in Adolescent Athletes' Perceived Autonomy-Support Coaching Behaviors and Social Behaviors by Gender and Sport Career

이경선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Kyong-Sun Lee([kspingpong@daum.net](mailto:kspingpong@daum.net))

### 요약

이 연구는 고교 운동선수의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라 지각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차이와 이들 변인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고교 선수 740명(남자선수=516명, 여자선수=224명)이었다. 자료는 기술통계, 2(성별)×3(운동경력) 다변량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처리되었다. 다변량분석의 결과 운동 경력이 낮은 여자선수가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코치의 행동을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고,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에 대해 더 높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력이 3년 이하인 선수가 운동경력이 높은 선수들보다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으로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통제적 코칭행동은 반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 중심어 : | 청소년 운동선수 | 자기결정성 이론 | 코칭행동 | 사회적 행동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dolescents' perceptions of coaching behavior and social behaviors differ by gender and sport career,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Subjects were 740 high school athletes (516 males, 224 femal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2(gender)×3(sport career) MANOVA. Results of MANOVA indicat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sport career significantly influenced to the level of prosocial behaviors on opponents. Male athletes perceived their coaches' behaviors more controlled and showed higher antisocial behaviors to opponents than female athletes. Athletes with low sport career reported higher antisocial behaviors on opponents than those with high careers. Autonomy-supportive coach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social behaviors, but negatively related with antisocial behaviors. Controlled coach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ntisocial behaviors.

■ keyword : | Adolescent Athletes | Self-Determination Theory | Coaching Behaviors | Social behaviors |

## 1. 서론

스포츠 맥락에서 선수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코치의 영향력이다[1]. 코치는 선수들이 스포츠 참여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경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 일반적으로 많은 코치의 행동이 선수들의 동기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제와 압박과 같은 비적응적 코칭행동은 선수들에게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자아 존중감[3], 만성적 스트레스[4], 섭식장애[5], 사회적 행동[6] 등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코칭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Leadership for Sport Scale[7], Coach Behaviors Assessment System[8], Coaching Feedback Questionnaire[9], Coaching Behaviour Scale for Sport[10] 등을 이용하여 선수들의 동기, 즐거움, 만족, 지각된 유능성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가 코칭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동기적 기전을 탐색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상이한 코칭행동을 규명할 것을 제안하였다[11].

자기결정성 이론은 코치의 행동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autonomy-supportive behavior)과 통제적 행동(controlling behavior)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12].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선수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들이 의지력과 선택, 결단력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코칭행동은 선수들로 하여금 스포츠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열심히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기여한다[13].

대조적으로, 통제적인 대인간 스타일을 보이는 코치는 선수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강요적이고 억압적이며 권위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14]. 이러한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성 감소 및 통제된 동기를 가져온다[15].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코칭행동이 긍정적인 결과

와 정적 관련이 있는 반면, 통제적 코칭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과는 달리 통제적 코칭행동은 현재까지 많이 탐색되지 않았지만,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과 부적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4][16]. 또한 주전선수가 비주전 선수보다 코치들에게 자율성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며[17], 고교 여자선수들의 연령(14세-17세)에 따른 지각된 코칭행동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인차 변수인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른 코칭행동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 의해 지각된 코칭행동은 이들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익을 주려는 행동을 뜻하며[19], 반사회적 행동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20]. 기존의 연구는 코치에게 자율성을 지지받는다 고 지각한 선수들이 팀 동료와 상대방 선수들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 코치가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고 지각한 선수는 팀 동료와 상대방 선수들에게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21-23]. 하지만 현재까지 선수들의 개인차 변인에 따른 사회적 행동의 차이는 탐색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를 종합하면,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은 상호 호혜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에서든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주요 개인차 변인들(예; 성별, 운동경력, 연령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과[24],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이 심리적 욕구[25][26] 및 동기유형[27]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선수들에 따라 지도자의 리더십 행동의 지각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지만[28][29],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선수들의 지각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 수준은 밝혀진 바 없다.

스포츠 맥락에서 청소년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은 이들의 동기와 정서, 수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탈과 공격성향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30]. 이 점에서 선수들의 동기와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선행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라 이들 변수의 선형조합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한다면, 바람직한 코치-선수 관계 형성과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의 유형과 사회적 행동 수준이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두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소재한 3개 체육고등학교 남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외부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체육고등학교의 특성상 자료수집에 협조 의사를 밝힌 4개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학교별로 200명을 배정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800명의 선수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지만,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38명의 자료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자료 분석은 740명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 운동경력 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선수는 224명(30.3%), 남자선수는 516명(69.7%)이었다. 운동 경력은 3년 이하가 242명(32.7%), 4년-6년이 276명(37.3%), 7년 이상의 선수가 222명(30.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218명(29.5%), 2학년 274명(37.0%), 3학년 선수가 248명(33.5%)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52세이며, 운동 경력은 5.09년으로 나타났다. 종목은 축구, 태권도, 사격, 양궁을 비롯하여 총 27개 스포츠 종목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2.1 지각된 코칭행동 질문지

청소년 선수들이 평소 연습과 시합 상황에서 지각한 자율성 지지 및 통제된 코칭행동은 두 가지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31][32].

먼저, 선수들에 의해 지각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국내 연구[33]에서 사용된 지각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 질문지[34]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단일 요인의 6문항(1. 우리 코치가 나에게 선택권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느낀다.; 2. 우리 코치가 나를 인정한다고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반응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는  $\alpha=.935$ 로 나타났다.

선수들에게 지각된 통제적 코칭행동은 국내 연구[35]에서 사용된 지각된 통제적 코칭행동 질문지[36]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단일 차원 4문항(1. 우리 코치는 자기 방식대로만 나에게 훈련하기를 바란다.; 2. 우리 코치는 내가 잘할 때만 칭찬과 보상을 해준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한다. 전체 평균이 높을수록 코치의 통제적 행동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4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alpha=.840$ 이었다.

#### 2.2 사회적 행동 질문지

청소년 선수들의 사회적 행동은 국내 연구[37]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 질문지[38]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번역본 질문지는 원본 질문지와 마찬가지로 팀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4문항; 우리 팀 동료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었다),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3문항; 녹아웃된 상대편 선수를 도와주었다),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5문항; 우리 팀 동료에게 욕을 하였다),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8문항; 상대팀 선수를 비난하였다)을 측정하는 4요인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수들은 가장 최근의 시합 상황에서 발생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각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반응한다. 각 문항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자료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최대우도방식)을 실시한 결과, 4요인 측정모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자유도의 비(Q)를 제외한 주요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할 만하였다( $\chi^2=812.68$ ,  $df=164$ ,  $p=.001$ ,  $Q=4.95$ ,  $RMR=.052$ ,  $TLI=.903$ ,  $CFI=.916$ ,  $RMSEA=.072$ ).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71에서 .92까지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712, .673, .757, .723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자료수집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해당 체육교의 부장교사나 코치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이 훈련참가와 시합 일정으로 인해 설문조사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다음으로, 각 학교별 조사일정에 따라 본 연구자가 해당 체육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장교사가 선수들에게 이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작성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되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SPSS 15.0 및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분

석이 실시되었다. 둘째, 각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 다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다만, 운동 경력은 연구대상이 고교생이며 3년 미만의 운동경력자가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행연구[37]에 근거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지각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 간의 상호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alpha=.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표 1]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선수들은 통제적 코칭행동(M=3.28)과 비교하여 코치들에게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한다고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4.18). 사회적 행동의 경우, 선수들은 상대편 선수들에 비해 팀 동료 선수들에 대해 각각 더 높은 친사회적 행동(M=3.68)과 반사회적 행동(M=2.02)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왜도( $\leq 2.0$ )와 첨도( $\leq 4.0$ )에서는 그 기준치를 초과한 문항은 보이지 않았다.

### 2. 다변량분석

고교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라 지각된 코칭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남자선수/여자선수) $\times$ 3(3년 이하/4-6년/7년 이상) 다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사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

표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인	M	SD	왜도	첨도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ACB)	4.18	1.32	.01	-.36
통제적 코칭행동(CCB)	3.28	1.35	.40	-.43
팀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PBT)	3.68	.66	-.16	.24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PBO)	2.49	.85	-.02	-.42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ABT)	2.02	.87	.47	-.79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ABO)	1.59	.75	1.20	.87

변량 분석 절차에서 불균형 설계에 적합한 Type III 모델이 설정되었다. [표 2]에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별 평균(M)과 표준편차(SD), 단일변량 F값 및 효과크기( $\eta^2$ )가 제시되었다. 이원 다변량분석의 결과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Box's M값이  $p < .001$ 로 나타나 유의수준을  $\alpha = .01$ 로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해석하였다(Box's M=366.20,  $F=3.40$ ,  $p=.001$ ).

이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수들의 성별의 주효과(Wilks' lambda=.904,  $F(6,729)=12.83$ ,  $p=.001$ ,  $\eta^2=.10$ )와 운동경력에 따른 주효과(Wilks' lambda=.955,  $F(12,1458)=2.83$ ,  $p=.001$ ,  $\eta^2=.02$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종속변수들의 선형조합에 대해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950,  $F(12,1458)=3.14$ ,  $p=.001$ ,  $\eta^2=.02$ ). 고교 운동선수의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상호작용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주효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738)=6.82$ ,  $p=.001$ ,  $\eta^2=.02$ ). [그림 1]에서 보듯이, 여자선수들이 운동경력이 낮을수록 상대팀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효과는 없지만 주효과가 나타남

에 따라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인 F값이 확인되었다. [표 2]의 우측에 제시된 것처럼, 남녀 선수들의 경우에 지각된 통제적 코칭행동(CCB)과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ABT), 그리고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ABO)에서는 남녀 선수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1$ ). 반면에 지각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ACB), 팀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PBT) 및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PBO)에서는 남녀 선수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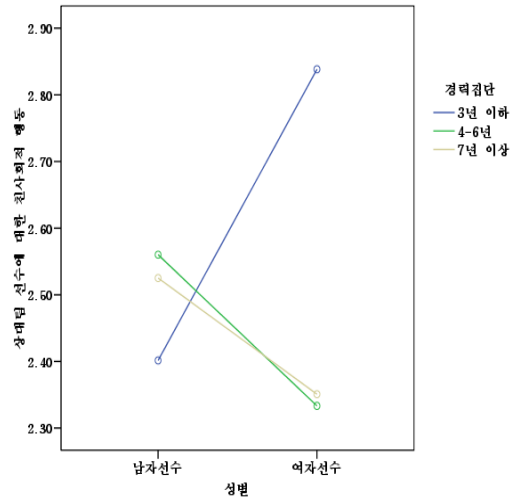


그림 1.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성별과 운동경력의 상호작용

표 2.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른 지각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변인의 다변량분석의 결과 요약

변인		전체		3년(n=242)		4-6년(n=276)		7년(n=222)		성별		경력		성별×경력	
		M(SD)	M	SD	M	SD	M	SD	F	$\eta^2$	F	$\eta^2$	F	$\eta^2$	
ACB	남자	4.24(1.34)	3.99	1.36	4.39	1.35	4.24	1.34	2.49	.00	1.33	.00	2.06	.00	
	여자	4.06(1.27)	4.08	1.18	3.96	1.32	4.17	1.32							
CCB	남자	3.42(1.38)	3.65	1.32	3.31	1.38	3.28	1.44	16.37***	.02	3.61*	.01	.17	.00	
	여자	2.97(1.23)	3.15	1.15	2.85	1.20	2.93	1.33							
PBT	남자	3.70(.67)	3.68	.74	3.76	.64	3.65	.63	2.44	.00	3.24*	.01	.28	.00	
	여자	3.62(.64)	3.59	.62	3.73	.62	3.53	.67							
PBO	남자	2.49(.90)	2.40	.90	2.56	.96	2.52	.82	.03	.00	2.91	.00	9.49***	.02	
	여자	2.48(.72)	2.83	.62	2.33	.80	2.35	.62							
ABT	남자	2.12(.88)	2.16	.91	2.07	.86	2.13	.87	19.96***	.03	5.89**	.02	2.55	.01	
	여자	1.80(.81)	2.03	.95	1.56	.62	1.85	.81							
ABO	남자	1.71(.80)	1.68	.81	1.63	.78	1.84	.80	44.64***	.06	.99	.00	1.47	.00	
	여자	1.33(.51)	1.34	.45	1.33	.55	1.31	.53							

\*  $p < .05$ , \*\*  $p < .01$ , \*\*\*  $p < .001$

선수들의 운동경력에 경우에, 지각된 통계적 코칭행동과 팀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서 단변인  $F$ 값의 유의수준이  $p < .01$ 에 미치지 못하여 세 경력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단변인  $F$ 값이  $p < .01$ 로 세 경력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738)=5.89, p=.003$ ). 따라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운동경력이 3년 미만인 선수 집단이 4-6년 경력의 선수 집단보다 더 높은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수준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과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운동경력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371$ ).

### 3. 상관분석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3]에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선수들에 의해 지각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비록 미약하지만 팀동료( $r=.27, p=.01$ )뿐만 아니라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r=.11, p=.01$ )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팀동료( $r=-.15, p=.01$ )와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r=-.11, p=.01$ )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에 의해 지각된 통제적 코칭행동은 팀동료 및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지만, 팀동료( $r=.25, p=.01$ ) 및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r=.19, p=.01$ )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수의 상관분석의 결과

변인	1	2	3	4	5	6
1.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ACB)	1					
2. 통제적 코칭행동(CCB)	-.28**	1				
3. 팀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PBT)	.27**	.05	1			
4.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PBO)	.11**	.06	.21**	1		
5.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ABT)	-.15**	.25**	-.17**	.24**	1	
6.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ABO)	-.11**	.19**	.16**	.21**	.57**	1

\*\*  $p < .01$

## IV. 논의

이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남녀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코칭행동 및 사회적 행동이 성별과 운동경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선수들의 사회적 행동 중에서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만이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들에 비해 통제적 코칭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운동경력 집단 간 차이는 3년 미만의 선수 집단이 4-6년 경력의 선수 집단보다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 수준에 따른 지각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 수준의 차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체육고등학교 남녀 선수들이 참여한 이 연구결과는 남자선수일수록 코치로부터 통제적이고 강요적 행동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결과는 일부분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들에 비해 코치가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지만[29], 여자선수들에 비해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수준이 훨씬 더 높은 남자선수들이 코치의 과도한 통제, 비난, 강압적인 지시 등의 통제적이고 강요적인 행동들로 인해 자기존중감과 세 가지 심리적 욕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0].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코치는 통제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코칭

행동 전략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상황에 따라 특정한 코칭행동 전략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30].

다음으로, 선수들의 사회적 행동 중에서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이 모두 여자선수들에 비해 남자선수들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남자선수일수록 자신의 동료와 상대팀 선수들에 대해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며[31],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경력이 낮은 선수가 높은 선수들에 비해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37]. 특히, 경력이 낮은 선수일수록 팀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선수일수록 자기 결정적 동기보다는 아직까지 통제적 동기에 의해 스포츠에 참여하고[38], 팀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고, 코치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에 많은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39].

이와 같은 주효과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운동경력이 어린 여자선수일수록 상대팀 선수에 대해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 단체종목보다는 개인종목을 육성하는 체육고등학교의 특성에 비추어 스포츠 유형을 고려하지 않았고 코치들의 성별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전반적으로 결과해석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이 결과는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성향이 더 높으며[22], 운동경력이 낮을수록 비윤리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에 덜 노출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기 때문이다[40][41].

마지막으로, 지각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 유형 간의 상호 관계성을 탐색한 결과,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정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통제적 코칭행동은 친사회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지만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 결과는 코치가 자율성을 지지한다고 지각한 선수일수록 친사회적 행동 성향이 더 강하지만, 코치가 강

요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을 한다고 지각하는 선수일수록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고한 기존의 결과들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42][14][43][22].

이상과 같이 체육고등학교 남녀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성별과 운동경력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이들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선수들에게 강요적이고 통제적이며 권위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스포츠 자체가 가치가 있고 중요하며 자신의 의지와 결단,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코칭행동 모두 선수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코치가 선수들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할수록 선수들은 자신의 행동을 내적으로 조절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바람직한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되기 때문이다[9][2].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고등학교 남녀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이 성별과 운동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남녀 선수들 간에 차이가 없지만, 통제적 코칭행동은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들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 또한 팀동료 및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남녀 선수들 간에 차이가 없지만,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은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들보다 더 높다.

둘째,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코칭행동, 팀동료와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코칭행동, 그리고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은 운동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는 없지만, 팀동료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선수들이 4-6년 경력의 선수들에 비해 더 높다.

셋째, 운동경력이 3년 미만인 여자선수들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팀 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

넷째, 지각된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은 친사회적 행동과는 정적으로,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통제적 코칭행동은 반사회적 행동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소의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선수들의 성별과 운동경력 수준만을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 즉,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 스포츠 유형, 코치들의 성별, 스포츠 환경, 팀 분위기,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코칭행동의 지각 수준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코치로부터 지각된 행동과 선수들의 사회적 행동 사이에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관련성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결과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코치의 행동이 선수들의 반사회적 행동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비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팀 분위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선행요인들이 선수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사회적 행동 혹은 도덕성을 결정짓는 주요 예측 변수들을 탐색하여 그 영향력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선수들 역시 코치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각되더라도 평소애 자신의 기량향상과 숙달, 그리고 성공을 위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수록 역경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44],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45]는 점에서, 추후 코칭행동과 자기관리 또는 수행결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A. J. Amorose and D. Anderson-Butcher, "Autonomy-supportive coaching and self-

determined motiv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8, pp.654-670, 2007.

[2] G. A. Mageau and R. J. Vallerand,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21, pp.883-904, 2003.

[3] T. K. Scanlan, G. L. Stein, and K. Ravizza, "An in-depth study of former elite figure skaters: Sources of stres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13, pp.103-120, 1991.

[4] D. Gould, Intensive sport participation and prepubescent athletes: Competitive stress and burnout, *Human Kinetics*, 1993.

[5] J. Sundgot-Borgen and M. K. Torstveit, "Prevalence of eating disorders in elite athletes is high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Clinical Journal of Sport Medicine*, Vol.14, pp.25-32, 2004.

[6] I. D. Boardley and M. Kavussanu, "The influence of social variables and moral disengagement on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s in field hockey and netball,"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27, pp.843-854, 2009.

[7] P. Chelladurai and S. D. Saleh, "Dimensions of leader behavior in sports: Development of a leadership scale,"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2, pp.34-35, 1980.

[8] R. E. Smith, F. L. Smoll, and B. Hunt, "A system for the behavioral assessment of athletic coaches," *The Research Quarterly*, Vol.48, pp.401-407, 1977.

[9] A. J. Amorose and T. S. Horn, "Intrinsic motivation: Relationships with collegiate athletes' gender, scholarship status, and perceptions of their coaches behaviour,"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22, pp.63-84, 2000.



- [10] J. Côté, J. Yardely, J. Hay, W. Sedgwick, and J. Baker,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coaching behavior scale for sport," *Avante*, Vol.5, pp.82-92, 1999.
- [11]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ur*. New York: Plenum.
- [12] R. J. Vallerand and G. F. Losier, "An integrative analysi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Vol.11, pp.142-169, 1999.
- [13] G. A. Mageau and R. J. Vallerand,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21, pp.883-904, 2003.
- [14] K. J. Bartholomew, N. Ntoumanis, and C. Thøgersen-Ntoumani, "The controlling interpersonal style in a coaching contex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sychometric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32, pp.193-216, 2010.
- [15] C. M. Blanchard, C. E. Amiot, S. Perreault, R. J. Vallerand, and P. Provencher, "Cohesiveness, coach's interpersonal style and psychological needs: Their effects on self-determination and athletes'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10, pp.307-321, 2009.
- [16] L. G. Pelletier, M. S. Fortier, R. J. Vallerand, and N. M. Brière,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forms of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A prospective study," *Motivation and Emotion*, Vol.25, pp.279-306, 2001.
- [17] 김기형, 박중길,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육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pp.33-48, 2009.
- [18] S. P. Cumming, J. C. Eisemann, F. L. Smoll, R. E. Smith, and R. M. Malina, "Body size and perceptions of coaching behaviors by adolescent female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6, pp.693-705, 2005.
- [19] N. Weinstein and R. M. Ryan,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helper and the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8, pp.222-244, 2010.
- [20] L. Sage, M. Kavussanu, and J. L. Duda, "Goal orientations and moral identity as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functioning in male association football players,"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24, pp.455-466, 2006.
- [21] I. D. Boardley and M. Kavussanu, "The influence of social variables and moral disengagement on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s in field hockey and netball,"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27, pp.843-854, 2009.
- [22] K. Hodge and C. Lonsdal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The role of coaching style, autonomous vs. controll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33, pp.527-547, 2011.
- [23] M. Kavussanu and I. D. Boardley, "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31, pp.97-117, 2009.
- [24] 김선욱, 양명환, "태권도와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1호, pp.163-174, 2013.
- [25] 유정인, 최만식, "청소년 팀 스포츠 선수의 지각된 자율성지지와 심리적 육구 및 운동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코칭능력개발지*, 제13권, 제3호, pp.3-14, 2011.
- [26] 이 철, 송용관, "코치의 자율성지지, 성취목표 동기유형과 기본 심리적 요구와의 관계", *한국체육*

- 학회지, 제50권, 제3호, pp.275-286, 2011.
- [27] 양명환, 김덕진,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 행동과 운동동기와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17-231, 2010.
- [28] 성창훈, "청소년 운동선수의 지각된 코칭행동과 스포츠 경험지각 및 내적동기 요소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38권, 제3호, pp.244-259, 1999.
- [29] 성창훈, "청소년 운동선수의 리더십 지각(I): 코칭행동의 지각과 선호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55-74, 2000.
- [30] K. J. Bartholomew, N. Ntoumanis, and C. Thøgersen-Ntoumani, "A review of controlling motivational strategies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sports coache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2, pp.215-233, 2009.
- [31] K. Hodge and C. Lonsdal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The role of coaching style, autonomous vs. controll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33, pp.527-547, 2011.
- [32] M. Nicolas, P. Gaudreau, and V. Franche, "Perception of coaching behaviors, coping, and achievement in a sport competitio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33, pp.460-468, 2011.
- [33] 김기형, 박중길,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욕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pp.33-48, 2009.
- [34] A. J. Amorose and D. Anderson-Butcher, "Autonomy-supportive coaching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8, pp.654-670, 2007.
- [35] 김승재, 박중길, "운동선수의 성, 나이, 운동경력에 따른 탈진의 차이 및 정서와의 관계", 2012 한국체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122, 2012.
- [36] J. Stebbings, I. M. Taylor, and C. M. Spray, "Antecedents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ive and controlling behaviors: Coach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33, pp.252-272, 2011.
- [37] 박중길, 김경원, "고교 운동선수의 사회적 행동 수준과 도덕적 이탈과의 관계", 전국체전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176, 2012.
- [38] M. Kavussanu and I. D. Boarddley, "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31, pp.97-117, 2009.
- [39] Gagné, M.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prosocial behavio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27, 199-223.
- [40] 황옥철, 박중길(2012). 청소년 운동선수의 열정과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가 공격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5), 279-292.
- [41] Ryan, M. K., Williams, J. M., & Wimer, B. (1990). Athletic aggression: Perceived legitimacy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girls' high school basketbal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2, 48-55.
- [42] 천승현, 송용관(2012). 통제적 코칭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1), 111-123.
- [43] Donahue, E. G., Miquelon, P., Valois, P., Goulet, C., & Vallerand, R. J. (2006). A motivational model of 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 use in elite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8, 511-520.
- [44] 김정목, "학생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와 스포츠 대처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

12호, pp.397-405, 2010.

- [45] 김홍설,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및 정신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pp.391-397, 2010.

#### 저자 소개

이 경 선(Kyong-Sun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용인대학교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 학사)
- 2004년 2월 : 용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6년 2월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 스포츠코칭, 체육교육모형